

예능인 없는 2017 예능 '외국인' '관찰' '가족'

올해 예능의 키워드를 꼽자면 관찰, 가족, 비예능인, 외국인이다. 관찰 예능의 인기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 2017년에는 유독 두드러진 활약을 보였다. '윤식당'부터 '동상이몽', '나 혼자 산다', '효리네 민박',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불타는 청춘', '이방인', '오지의 마법사', '나의 외사친', '미운우리새끼' 등 여러 관찰 예능이 선보였다.

윤식당 · 미운우리새끼 · 효리네 민박 등 올해 관찰 예능 유독 두드러진 활약 보여

관찰 예능은 화려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우리네 인생과 별반 다르지 않은 삶을 보여주며 재미를 준다. 현대인의 일반적인 욕구인 옛보기 심리, 즉 관음증을 적절히 충족시키며 시청률과 이슈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

관찰 예능의 특성상 전형적인 예능인보다 배우, 가수 등 다양한 이들이 눈에 띄었다. 일례로 '윤식당'에는 배우들이 주된 출연자였다. 요리 담당 윤여정, 주방 보조 정유미, 과일 주스 민들 기를 실행한 이서진, 서빙 담당 신구까지 각각의 일을 분담하며 성공적으로 운영했다. 화려한 배우들이 낯선 해외에 가서 한식당을 열고 손

님을 맞는 모습이 이색적이었다. 그 안에서 멤버들이 빚어낸 케미스트리가 불거러왔다. '효리네 민박'도 마찬가지였다. 이효리 부부를 비롯해 알바생 아이유, 그리고 일반인 투숙객이 주인공이었다. 제주도를 힐링 공간에서 소탈한 삶을 꾸려가는 톱가수 이효리의 매력에 고스란히 담겼다. 올해 전성기를 누린 '나 혼자 산다'는 한혜진, 이서연, 헨리, 기안84가 인기로 한몫했다. 이국적인 볼거리를 담은 '오지의 마법사'에도 엄기준, 한채영, 위너 진우, 최민용 등 비예능인이 대거 출연했다. 이에 더해 눈길을 끄는 요소는 '가족'이다. 대중의 공감증과 호기심은 스타를 넘어 스타들의 가족에게까지 향하기 마련이다. 과거 '아빠 어디가', '슈퍼맨이 돌아왔다' 등 육아를 중심으로 한 가족 관찰 예능이 주를 이뤘다면 현재는 가족이라는 소재를 보다 다양한 방식

로 활용한다. '동상이몽'은 추자현 유희광, 장신영, 강경준, 김정근 이지에, 정대세, 명서현, 이재명, 김혜경 부부 등 각기 다른 부부생활을 보여줬다. 미운우리새끼는 싱글 스타들의 엄마들이 출연진보다 재밌는 입담을 과시하고 있다. 유은진 가족, 이수근 가족이 해외로 나가 그 가족들과 친구를 맺는 '나의 외사친', 김태원, 최양락, 안지환, 정성모 등이 딸의 연애 등 일상을 지켜보는 '내 딸의 남자를 아빠가 보고 있다', 해외여행을 간 연예인들의 아내 이야기를 담은 '싱글와이프'까지 다양했다. '외국인' 키워드도 빠질 수 없다. 과거 외국 여성들이 한국생활을 이야기한 '미녀들의 수다', 외국인 남성이 한국을 비롯한 세계의 안전을 놓고 토론한 '비정상회담' 등에 이어 리얼리티 예능으로 또 한 번 외국인 예능의 봄이 일었다. 한국에 처음 온 외국 친구들의 여



행기를 그린 MBC에브리원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가 시발점이 됐다. 여형 타입은 물론 성향, 캐릭터, 한국에 대한 반응까지 각기 다른 외국인들의 모습을 보는 재미를 안겼다. 이에 형식만 다를 뿐 외국인을 소

재로 한 비슷한 프로그램이 우후죽순 생겨났다. 이후, 심상정, 오연수 등이 또래 외국인의 집에 머무르며 친해지는 과정을 담은 '나의 외사친', 외국인 파손연세, 헤민스님, 박신양 등 한

국 스타들이 서로 집을 바꿔 생활한 '내 방 안내서', 김숙, 장서희, 이기우, 김준호가 게스트하우스의 주인이 돼 외국인을 맞는 '서울메이트'까지 여러 외국인 예능이 시청자와 만났다.

그것만이 내 세상 vs 염력, 2018년 1월 극장가 관전포인트

드라마 '흑기사', 진자→코믹 오기는 복합장르



로 개봉을 마쳤다. CJ E&M에서 '1987'과 3주 차이를 벌려 '그것만이 내 세상'을 개봉시킨다. '그것만이 내 세상'이 개봉하는 만큼 CJ E&M으로선 '1987' 스크린수와 상영횟수를 조정할 수밖에 없다. 같은 날 개봉하는 '베이스 리너: 데스 큐어'도 시리즈 팬들이 있는데다 할리우드 영화를 관객이 다시 찾은 시기인 까닭에 흥행성이 주목된다. 1월24일에는 흥기선 감독의 유작 '급기발'이 선 보인다. 전투기 추락을 놓고 차세대 전투기 도입 방

2018년 1월 극장가는 전반기는 12월 한국영화 기대작들의 롤런 후 반부는 새해를 여는 기대작들의 대결로 압축될 전망이다. 연말연시 극장가를 '신과 함께'와 '1987'이 쌍왕으로 이끌면서 1월 중반부터 전반기와 하반기 전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1월 11일 '스타박스 다방'이 개봉하고 아직 개봉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나문의 신구 등이 출연한 '비밀비밀라디오'도 선보인다. 역시 '신과 함께'와 '1987'에 비해 덜 조명받는 영화들이다. 경쟁구도는 생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개봉하는 디즈니 애니메이션 '코리'는 가족 관객에게 좋은 반응이 있을 것 같지만 '겨울왕국' 같은 폭발적인 흥행을 점치는 쉽지 않다. 1월 중순까지 '신과 함께' '1987'이 얼마나 많은 관객을 동원하느냐에 따라 다른 영화 흥행에 더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두 영화가 스크린과 좌석수, 상영횟수를 얼마나 잠식할지가 관건이기 때문이다. 1월 본격적인 대결 구도는 17일 개봉하는 '그것만이 내 세상'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성환 감독의 '그것만이 내 세상'은 한물간 복서가 정신지체를 갖고 있지만 피아노에 천재적인 생면부지 등장과 만나면서 벌어지는 일을 그린 휴먼드라마. 이병헌과 박정민이 형제로 호흡을 맞췄다. 웃음과 눈물로 흥행에 일가견이 있는 JK퍼커츠 영화다. '그것만이 내 세상'은 CJ E&M에서 당초 12월 초 개봉하려다가 1월17일

산비리와 얽힌 이야기를 다룬다. 김상경과 김육빈이 주연을 맡았다. 사회 고발성 영화라 얼마나 휘발성이 있을지가 관건이다. '부산행' 연출가 감독의 신작 '염력'은 1월 극장가 한국영화 최대 기대작이다. 어느날 갑자기 초능력 이 생긴 아버지의 이야기다. 류승룡, 심은경이 주연을 맡았다. 좀비 열차 이야기였던 '부산행'과는 또 다른 연상호 감독의 장기가 담긴 영화다. '돼지의 왕', '사이버' 등 연상호 감독의 애니메이션들 계보를 잇는다. '염력'은 1월 말 개봉 예정이다. 1월 극장가 후반부는 '그것만이 내 세상'과 '염력'이 바른 터치를 이어받으며 흥행을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설 연휴가 2월 후반부터 '블랙팬서'가 2월14일 개봉하는 등 2월 경쟁작이 증선 이후에 개봉할 예정이다. '그것만이 내 세상'과 '염력'이 얼마나 흥행할지가 2018년 1월 극장가 관전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흑기사의 장르를 한 단어로 정의할 수 있을까. 과거와 현대를 오가며 시간을 뛰어넘더니, 60분 한 회에 슬픈 멜로, 미스터리, 판타지, 코믹, 로코까지 다양한 장르를 선사하고 있다. 지난 27일 방송된 KBS2 '흑기사' 7회에서는 사론(서지혜 분)이 해라(신세경 분)의 팔찌를 얻은 뒤, 해라의 모습으로 변해 자신에게 신을 그은 수호(김래원 분)에게 다가가는 모습이 그려졌다. 또, 사론은 해라의 전 남친을 찾아가 대놓고 유혹하는 등 수호와 해라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애썼다. 다행히 장백희(장미희 분)가 사론의 악행을 알아채고 저지하면서 마무리됐지만, 이후 사론의 몸에는 '九泉之鬼(구천의 귀)'라는 글자가 문신처럼 박혔고 해라에게 알 수 없는 괴력이 발생해 시신을 사로잡

았다. 지난 방송인 6회까지 수호, 해라, 사론 세 사람의 숨겨진 전선이 드러나면서, 슬픈 멜로 드라마를 방불케 했다. 어느 한 사람 '악역'이라고 낙인 찍어 미워하기 힘들 정도로, 각자 나름의 슬픈 사연들이 밝혀졌고, 그 인연은 현생으로 이어졌다. 특히 7회에서는 해라의 모습을 한 사론이 수호 앞에서 유혹의 몸짓을 시작으로 술주정, 트립 등을 하면서 코믹한 상황을 연출했고, 장백희가 사론의 영달이를 찿싸 때리는 장면도 다소 코믹했다. 엔딩에서 해라가 수호를 구하기 위해 갑자기 자전거를 힘겨루 던지는 모습도 살짝 재밌었다는 반응이 나왔다. 방송 직후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신신하고 재밌다"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 일부에서는 "여러 장르가 있어서 좀 당황스러운 느낌도 있다"라

는 의견도 존재한다. 그러나 이마저도 '흑기사'만의 매력으로 볼 수 있다. 앞서 '흑기사' 김인영 작가는 2007년 MBC '베리대구 공방전'을 통해 진지하면서도 웃긴 설정으로 마니아층을 형성했고, '흑기사' 제작진도 처음부터 복합장르가 주는 색다른 매력을 어필했다. 이를 새롭게 보는 시청자들이 늘어나면서 현재 동 시간대 수목극 시청률 1위를 지키고 있다. 7회는 시청률 11.6%(닐슨코리아, 전국 기준)를 기록하며, 자체 최고를 경신했다. 한 관계자에 따르면 8회에서는 판타지 설정을 바탕에 두면서, 동시에 김래원과 신세경의 멜로 장면의 비중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판타지 복합장르로 수목극 왕좌를 유지하고 있는 '흑기사의 향후 전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블라비, 내달 8일 리패키지 확정

일 리패키지 앨범으로 컴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월 8일 공개될 리패키지 앨범은 지난 11월 발매한 여섯 번째 미니앨범 '몽타주(MONTAGE)'의 리패키지 앨범이다. 블라비는 '몽타주'의 타이틀곡 '월 위댄스(Shall We Dance)'로 국내 각종 음원사이트 차트 1위는 물론, 미국 아이튠즈 K팝 송 차트(Top K-Pop Songs Charts)에서도 당당히 1위를 차지하며 뜨거운 인기를 실감하게 했다. 이외에도 영국, 오스트리아,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일본, 러시아 등 해외 여러 아이튠즈 K팝 차트에서 상위권에 랭크되며 대세 그룹으로서 위업을 달성한 만큼 새해에도 열일 행보로 대세그룹의 위업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가 모아진다. 한편 블라비는 2018년 1월 27일과 28일에 서울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단독 콘서트 '블라비 2018 블랙버스터 "MONTAGE"'를 개최해 팬들과 만날 예정이다.

오늘의 순세 2017년 12월 29일 금요일 (음력 11월 12일)

A grid of 12 zodiac-related fortune tellings. Each item includes a zodiac sign icon (e.g., mouse, tiger, rabbit, dragon, snake, horse, goat, monkey, rooster, dog, pig) and a short text prediction for that sign.